

“감로법문으로 봄을 맞는다” 전국서 큰스님 법회 잇달아

“우리 각자 자신이 온 우주의 만물과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후 우리의 사회와 세계는 다시 새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고통 또한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잘 보여줍니다.”

3월 31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주지 효명) 대법당에서 열린 화엄산림 대법회. 법담을 들은 2백여 불자들은 백운(미륵산 주지)의 법문에 자비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봄을 맞아 전국에서 연일 법회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법회들은 지난해 종단사태로 속앓이를 겪었던 불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다시 한번 불교의 지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낳는다.

정토회(회주 법륜)는 3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현대인을 위

한 깨달음의 강좌 ‘새로운 문명 창조와 정토세상만들기’를 주제로 백일법문을 진행한다. 매월 요일~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8시 깨달음의 강좌를 법륜강사가 직접 진행하고, 토요일특별강좌와 큰스님 초청 일일특별법문도 연다.

서울 송파 불광사(주지 지암)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일요일 원로스님을 초청, 지난 3월 입적한 광덕대선사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11일은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이, 16일에는 해암스님(조계종 종정)이 법문을 예정이다. 서울 역삼동 보리사(회주 종하)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큰스님 초청 법회를 열고 있으며, 우리는 선우(공통대표 남지심 박광사)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선우토요 법회를 상설해 신형활동의 토대를 법회를 통해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영불만일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해경스님(무설정사 주지)의 정토법회를 통해 영불신앙 운동의 확산을 도모한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도 3월부터 매월 큰스님을 초청, 15일엔 대명사에서 청화스님(前 태안사 주지) 법회가 열려 매마른 현대인의 가슴을 촉촉한 감로법수로 적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초청, <서장> 특별대법회를 시작했다. 이밖에 경남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와 인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에서 큰스님 초청법회가 열렸으며, 3일에는 서울 신탄동 대명사에서 청화스님(前 태안사 주지) 법회가 열려 매마른 현대인의 가슴을 촉촉한 감로법수로 적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법회 일정

법사	날짜	장소	전화번호
덕인스님	4월7일	해원정사	(051)866-7771
인환스님	4월8, 9일	"	"
인산스님	4월10일	"	"
대명스님	4월11일	정토회	(02)587-8992
청화스님	4월18일	"	"
서암스님	4월25일	"	"
성수스님	5월9일	"	"
무진장스님	4월11일	불광사	(02)413-6060
해암스님	4월16일	"	"
무진장스님	4월13일	보리사	(02)562-9939
정락스님	4월27일	"	"
해경스님	매주 일요일	동산교역화관	(02)732-1206
서암스님	4월15일	한국불교선학연구원	(02)541-0002
성수스님	5월21일	"	"
우룡스님	4월9일까지	대전보현문화회관	(042)624-6555



불교장기수후원회가 3월30일 장기수들이 사는 갈현동 만남의 집을 방문, 격려했다.

“마음 열면 통일발원 한마음”

불교장기수후원회 ‘갈현동 만남의집’ 방문

“그동안 사람들이 열선도 안했는데 이렇게 같이 앉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교장기수후원회가 활동재개와 함께 3월 30일 미전향 장기수들이 머물고 있는 갈현동 ‘제2 만남의 집’을 방문하자 이곳에 살고있는 미전향 장기수 우용각 박원규 양정호 김익진 장병락씨가 반갑게 맞았다. 한달전에 출소한 이들은 거주처를 못구해 어려움을 겪던중 자신의 집을 제공한 배에민씨(前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의 도움으로 제2 만남의 집에 동지를 틀게 됐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운영위원장 해조스님은 “서로 마음을 열고 편한 만남을 자주 갖도록 하자”고 따뜻한 위로를 했다. 40년만에 출소한 우용각씨는 “출소한 날 아무런 생각없이 가슴만 북받쳐 해산사 법장스님과 안고 울었다”고 털어놨다. 양정호씨는 “부담의 아픔은 우리세대만으로 충분하다”며 “다시는 우리민족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남북관계도 믿음을 바탕으로 통일문제까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산 사할 복원문제 얘기가 나오자 우용각씨는 “6·25 당시 신계사에 스님이 20년 계셨는데 절이 폭격으로 완파되자 스님들이 산동성이에 암자를 열기설기 지어 부처님을 모셔와 불공드리는 모습을 봤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불교장기수후원회는 이날 제2 만남의 집에 TV와 비디오, 과일, 식용류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장기수후원회는 전국불교연합회 실천승가회 새불교운동승가회 청년여래회 어울림산악회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재정 확립을 위해 후원사찰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02)720-6763 김원우 기자(wkwim@buddhania.com)

뉴스 & 뉴스

자비의 쌀 130포대 전달

전국 2천6백여 사암이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곡)은 1차 자비의 쌀 보내기 행사를 3월 30일 성북구 일대에서 펼쳤다.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본부에 모인 쌀 25kg들이 130여 포대를 성북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실직자가정, 목거노인 등 불우 가정들에 직접 전달했다. 이경숙 기자(gslse@buddhania.com)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연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연수교육이 3월 29~31일 태고종림 선암사에서 개최됐다. 40여명의 비구니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은 29일 입제식에 이어 태고사상의 이론 정립에 따른 실천방향, 한국불교의 발전방향, 시대에 부응하는 신도조직관리와 교화방법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좌선, 간경 등의 시간이 마련됐다. 30일 분과토의 시간에는 비구니회 운영방안과 조직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벌어졌다. 이경숙 기자(gslse@buddhania.com)

영불만일회 기념탑 조성

전국영불만일회는 3월 30일 한국일보 송림클럽에서 '99 간담회를 열고, 6차 영불만일회 기념탑 조성, 사단법인화 추진 등 4대 과제를 확정했다. 영불만일회는 올 8월 2일~4일 건봉사에서 성지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5월 2일~7일 중국 아미타 불교성지순례를 통해 정토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9월에는 부산에서 정토화살미나리 12월에는 전국영불만일회와 더불어 결성된 아미타무용단이 인도 내 팔 등지에서 아미타 춤공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포교논문 현상공모 실시

조계종 포교인 포교연구실은 포교에 대한 교계 내외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종단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포교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분야는 △종단의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신도 노년층 등 계층별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별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 △포교 방법론 및 실천 사례 연구 △포교 포교 사례 및 방법론 연구 △외국의 포교 활성 사례와 종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등. 누구나 응모 가능. (02)720-7064 김재경 기자

승가원 PC동호회 결성

승가원(대표이사 현성)이 지난 97년 PC통신 나무누리에 개설했던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사회복지인 동호회'가 결성됐다. 승가원은 1일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제한된 자료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네티즌 1백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개설했다. 한영우 기자

자원봉사자 관리 전산망 구축

연꽃마을(이사장 각연)이 법인 내부에 산하 30개 부설기관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하는 전산망을 구축,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연꽃마을은 부설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던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법인사무국에서 총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각 시의 체계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엔 설치된 통합관리 전산망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활동

“불교자정-개혁 재가 앞장서자”

재가연대 창립법회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3월 28일 2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불교계 자정과 개혁을 위하여 재가불자들이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재가연대는 구체적 사업으로 종단, 사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단권력 모니터링을 펼쳐법과 함께 재가불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종단참여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김원우 기자

진각복지회·인덕원 노인복지관 수탁

진각복지회와 인덕원이 29일 서울시가 위탁 운영할 5개 노인종합복지관 중 성북구와 은평구 2곳의 운영권을 따냈다.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6월중 개관해, 지역복지회 통한 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건평 785평에 지하 1층 지상5층의 규모다. 인덕원(원장 성운)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게 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대상으로 한 치매요양 및 치매대간보호소로 변경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덕원은 이일부터 상주 의사 및 간병인력,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장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건평 8백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군·병원용 포교소책자 2권 발간

조계종 포교인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은 최근 군장병을 위한 포교소책자 <주머니 속의 평화>와 병원 환자 가족들을 위한 소책자 <치유의 손길>을 동시에 발간·배포했다. <주머니 속의 평화>는 1만권, <치유의 손길>은 5천권이 각각 배포됐으며 불자들의 법보시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계속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통도사 정보박물관 11일 개관

통도사 본 말사의 정보 1만여 점을 보존·전시하게 될 통도사 정보박물관(관장 법하이)이 11일 개관한다. 통도사정보박물관은 5천여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총 1300평의 실내전시공간과 화연연구실, 유물수장고, 자료실, 보존관리실,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연 관람인원 1백50만명에게 불교전문화를 가까이 접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불교화해 전문 박물관으로 국내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높이 12m의 대형전시관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가 중앙홀에 마련되어 이색적이다. 소장하게 될 유물은 국가 지정 국보1점, 보물 8점, 지방유형문화재 32점등 약 1만여점. 이 중에는

통도사 정보박물관 11일 개관

4백여점의 불교화해가 포함되어 국내 박물관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풍부한 정보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금동삼존불을 비롯 석조스님 기증 유물, 역대스님들의 친필 2백여점, 고문서 2만여 점 등을 자랑거리로 꼽는다. 박물관은 풍부한 소장 유물을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활용해 불화전문 박물관의 특색을 살리는 불화기획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년에 1번 정도만 친견이 가능하던 패블을 상설 전시하며 연차적으로 80여 점의 패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람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坐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장소: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원: 선착순 50명
- 대상: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2만원

차수	기간	대상	회비
제8차	4월10일(토)~1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매월 2·4주에는 정기적으로 주말 수련회가 열립니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시: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 팩스 이용시: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동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간간 청소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불상점안 권선문

불교란 일생을 수련하여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종교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대대대바시 부처님을 표상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귀의토록하는 집시의 존상이며 근행기원에 있어 무언의 감화와 위시력을 드리워 주는 절대적 대상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곧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약수암”에서는 오랜 기도정진 끝에 수백년된 영험 있는 불상을 한번 모셔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맺어 여러 불자들에게서 두루 동참하실 수 있는 인연을 맺어 드리고자 점안 행사까지 신심신녀 여러분들의원호를 바라오니 특별하신 신심으로 인연을 맺으시어 영험있는 불상복장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점안일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 약사여래 기도 도량
지리산 약수암 TEL (0671)625-6831
주지 무 각 총무 법 행 두손모음
전북 남원시 덕곡면 덕촌리 산 183-2

동참금 1인당: ₩10,000
온라인 농협 024-02-098803 엄길호
불사기간중 인성 상담 무료
접수하신 분들은 점안일시까지 특별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대체의학의 혁명 공개

우리 인간은 100세 이상 살 수 있다.

모든 짐승은 자기 성장 과정의 10배 이상 살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1년만에 다 성장하여 15년을, 거북이는 100년을 성장하여 1500년을 산다. 우리 인간도 다같은 동물이며, 그렇게 살 수 있다. 인간은 20세까지 성장하다가 10배면 따라서 200세 이상이 천수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성장과정의 10배는 커녕 5배 이상도 살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짐승들보다 뇌가 1개 더 있다. 대뇌라는 정신총뇌 전자오락 기계의 기관과 같은 정보시스템이 뇌에 자극을 주어 내인(內因)의 병인, 암·당뇨·중풍·협심증·심근경색증 등 불치병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짐승에게는 이런 병이 없다. 또 외인(外因)의 병에 대한 저항력부족의 원인으로 병에 잘 걸린다. 정신적인 내인의 병(노·사·비·경·공·우), 외인의 병(풍·한·서·습·조·열·타박상·전염병) 이렇게 두가지 내인과 외인의 조절을 잘못하여 병으로 발전하며 실증과 허증으로 몸에 전이되어 오장육부에 깊이 병든다. 모든 병 치료에 앞서 내인의 병은 마음을 다스리고 약을 써야 하며, 외인의 병은 생활환경에 균형된 온도 조절 청결이 필요하며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식생활에서도 몸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실증이면 운동량을 많이 하고 힘을 빼주고 허증이면 운동량을 많이하여 힘을 빼면 몸을 더욱 해치게 된다. 실증과 허증으로 병이 발전하면 오장 육부가 상생 상극에 에너지 공급 순환의 조화가 깨지고 곧 병으로 크게 발전하며 어떠한 부위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이는 오장 육부가 자기병을 고쳐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치로 보면 된다. 실증은 화나는 일로 피가 열받아 삼초경이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열이 많으며 견비통, 요통, 목강이 오며 입맛은 좋고 여자는 멘스가 빠르다. 허증은 기운이 없고 두근두근 도동을 하며 요통 4·5번이 협착되고 어깨통증, 양기부족, 뒤가 무거운 후중기가 오고 입맛이 없고 여자는 멘스가 느리다. 이러한 증상은 원인치료가 되어 통증이 사라지고 협착 부위가 피진다. 아무리 통증부위 치료를 해도 임시 방편이며 원인치료는 안된다. 암·당뇨·중풍 치료비법, 얼굴보고 진단, 견진법, 오순속기, 한의약 중합법, 소림복권, 내공일지선법, 자기 스스로 치료 자발기공법, 백피타통 타신에게 발공치료법, 교육 후 수료증, 지부설립 할 수 있습니다.

운암한의학 연구학회 사단 키와 기공협회 TEL 2238-4038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한의학 무료공개강좌 H·P : 016-221-2250
위치 : 신실동 마사회 골목 미림식당 앞 오성빌딩 201호